

[사회]

■ 전남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타르 불똥'

"이러다가 자릿세도 못 내겠네요. 타르 피해가 없다고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놔야 서울 시민들이 사기질 않으니 무슨 소용입니까."

“피해없는 청정 수산물” 외쳐봐도...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설 명절을 맞아 전남지역 농수산물을 서울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녹색의 땅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있었다.

완도 김·미역·전복 등 매출 뚝 떨어져 "자릿세도 못낼라" 판매업자들 한숨만

난해엔 첫날에만 2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오후 3시 넘도록 하나도 팔지 못했다"며 "완도 쪽엔 타르 덩어리가 오지 않았지만 서울 시민들의 인식 속에 '전남=타르' 공식이 박혀있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말라'고 이야기하더라"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선물용으로는 준비할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 첫날 매출은 2억8천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간 떨어졌지만, 수산물 분야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문을 연 '녹색의 땅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장이 타르 공포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혈병 괴담’ 반도체 13社 건강실태 조사

국내 굴지의 반도체 업체의 공정 근로자가 잇따라 백혈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광주지역의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LG이노텍 등 국내 13개 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실태조사'를 벌인다.

의 화학물질 사용현황을 분석한 뒤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초조사 성격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는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벤젠과 방사선 등 화학물질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며 "최근 7년 동안 이 공장에서만 최소 6명의 백혈병 환자가 발생하는 등 이 회사에서 일했던 11명의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린 상태"라고 밝혔다.

금값 뛰자 밀수 기승

금값 상승으로 금·보석류의 밀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밀수·불법외환거래사범 단속 실적 6천 696건, 4조4천806억원으로 건수는 12% 증가했지만 금액은 28% 감소했다고 지난해 31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금·보석류 밀수입의 경우 가정주부·대학생 등이 가담한 금액 1.4t(327억원 상당) 밀수입 사건 32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홍보도 많이 했지만 타르로 인한 악영향이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

수입 쥐포·오징어 대장군 '우글우글' 수입 쥐포와 오징어, 한치 등 건포류 중 19.4%에서 식중독균 및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침 찬바람 2월 1일 (음 12월 25일) <전국날씨>

Table with 2 columns: 지역 (Region) and 날씨 (Weather). Includes temperatures for various cities like 서울, 부산, 광주, etc.

Table with 7 columns: 날짜 (Date),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Includes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 ranges.

수입 쥐포·오징어 대장군 '우글우글'

수입 쥐포와 오징어, 한치 등 건포류 중 19.4%에서 식중독균 및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소재 백화점·대형마트·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수입건포류 8품목 3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아울러 수입건포류는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재래시장에서 비포장상태로 판매하는 12개 제품은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고, 2개 제품(은어, 황태)에서는 별레가 확인됐다.

설 연휴 서울~광주 7시간 50분

올해 설 연휴기간에는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오는 귀성길이 7시간 50분, 반대로 서울로 올라가는 귀경길은 7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설 연휴기간 동안 주요 구간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을 발표하고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광주, 서서울→목포를 내려오는 귀성길은 각각 7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또 귀경길의 경우 광주→서울은 7시간 10분, 목포→서서울은 7시간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목겨겨 눈농민에 영농 도우미 지원

정부가 사고나 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 1만3천명에게 '도우미'를 지원, 노동력 손실을 메워준다.

농림부는 올해 예산 47억원을 들여 농업인 1만3천명을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지난해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5만㎡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사고(2주 이상 상해진 다)나 질병(2주 이상 입원진단)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도우미를 파견해 농작업을 대신하게 하는 농업인 위기 관리 제도다.

E-Supporter 어학원 advertisement featuring a table of course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RODIN TOY STORE advertisement for a Big Sale with various product images and promotional text.